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rak
dongrak.kong@daishin.com

8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상 전망

-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25bp 인상 예상
- 7월에 이은 백투백 인상: “인상 이어갈 필요” 반영한 2회 연속 인상 전망
- 크게 상향될 성장률 전망 반영. 기존 2.6%에서 3.2~3.3%로 상향 예상

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25bp 인상 예상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앞선 7월에 이어 2회 연속 인상으로 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인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투백(back to back)” 금리 인상. 특히 크게 상향될 성장률 전망 반영

지난 7월 직후 당사는 당시 금통위 및 신현송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만을 놓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총재가 해당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인데 따른 예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되는 실물 경제 여건이 큰 폭의 성장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꾸준히 예상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한데 이어, 내수 지표들 역시 연쇄적으로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당사는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각각 1회씩(25bp 단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예상되는 최종금리 수준 역시 기존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했다(2026년 연말 한국 기준금리 3.25%, 2027년 1분기 말 3.50% 예상).

26년 성장률 전망 최대 3.5%까지 가능, 물가는 근원 물가 전망 상향 예상

한편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진행되는 한은 수정 경제전망에 대한 예상도 함께 제시토록 하겠다.

당사 이정훈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은 기존 2.6%에서 3.2~3.3%로 상향될 전망이며, 낙관적 시나리오가 반영되면 최대 3.5%까지도 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2027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2.1%에서 2.5% 내외로 상향될 것을 예상한다.

물가의 경우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헤드라인은 기존 2.7%로 유지될 것인 반면 근원 물가 전망은 기존 2.4%에서 2.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7년의 경우 헤드라인은 2.3%로 유지, 근원물가는 2.3%에서 2.4%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